

호남의 사전투표 열기가 말해주는 것

열린세상

박상수

광주전남언론인회 부회장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목요일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갔다. 벌써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머리가 하연 할머니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많았다. 맑은 하지 않아도 그들의 반짝이는 눈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 12·3 계엄 사태로 흐트러진 나라의 혼란을 종식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열망과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다.

압도적 투표를 호남인 열망 반영

이번 대선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선보다 약간 낮은 34.74%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토요일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평일에 치러진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호남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눈길을 끈다. 전남은 56.50%, 전북은 53.01%, 광주는 52.12%의 투표율로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영남권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는 25.63%로 전국 꼴찌이고, 부산 30.37%, 경북 31.52%, 경남 31.71%, 울산 32.01%를 각각 기록했다. 호남은 지난 20 대선 당시 기록했던 전남 51.45%,

전북 48.63%, 광주 48.27%를 훨씬 능가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보다 약 8% 포인트 낮게 나왔다고 한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호남 사람들은 왜 절반이 넘게 사전투표소로 달려갔을까.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전투표소로 간 것은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기대와 열망이 담긴 것이다. 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을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가 작용했다. 윤석열 처럼 무능하고 무도한 사람, 그런 집단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했다.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역대 보수 대통령은 모두 부정과 비리로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비열한 집단이 또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수렁에 빠진다. 호남의 사전투표 열기는 그런 사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반대로 보수 유권자가 많은 영남권의 투표율이 더 낮아진 것은 계엄과 탄핵, 후보 단일화 논란 등을 거치며 승산이 없는 보수 후보에 실망한 나머지 투표 의욕이 꺾였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전투표로 대선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호남의 사전투표가 열기가 높은 이유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반감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주 갑자기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자신이 고문인 새미래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이 당선 되면 괴물 독재정권이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문수가 당선돼 ‘윤석열 시즌 2’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TV에 나와 김문수 후보 전조 연설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서 측은하면서 도 서글픈 먼저 생각이 들었다. 이낙연은 그동안 내란을 줄곧 옹호해온 김문수를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동조자가 됐다. 국힘은 이낙연을 이용하고 이기든 지든 토사구팽할 게 뻔하

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낙연이 김문수에게 간 것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진 것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한풀이를 한 것이다. 이재명이 아무리 밉더라도 사적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큰 정치인이 아니다.

이낙연 배신도 투표 열기 부추겨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의 은덕 속에 영예를 누려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공천을 받아 고향 영광에서 어려움 없이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아무리 한이 맺혔다고 해도 그런 민주당과 호남을 배신하고 내란 세력의 품에 안기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도, 사람의 도리도 아니다. 그는 ‘김대중 재단’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 ‘사의재’에서도 고문직을 제명당했다. 사람은 마지막 행보가 아름다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추한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다. 이번에 사전투표소에 나온 영광의 노인들이 ‘이낙연 미워서 나왔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사전투표소로 달려간 많은 호남 사람이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호남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 못지않게 이낙연도 심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낙연의 배신은 호남을 자국해 더 뒤흔들치게 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이낙연은 정치권에서 그림자마저 사라질 것이다.

21대 대선의 본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올바른 투표를 하면 총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불의의 과녁에 총을 쏘는 심정으로 투표를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사전투표장에 못 간 사람들은 내일 본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AI 심장 품어야 국가가 산다

데이터 생태계를 융합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단순한 하드웨어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AI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었다.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런티어’는 세계 최초의 엑사(Exa)급 국가 AI컴퓨팅센터(1.1엑사플롭스, ORNL 발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기초과학부터 산업 R&D까지 거대 계산 자원을 개방하며 신약 개발·재료 설계·기후 모델링 등에서 혁신적 결과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컴퓨팅 자원의 개방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의 빠른 기술 이전을 가능케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는 엔비디아가 영국 정부·제약사·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뤄 구축한 400 PF급 AI 슈퍼컴퓨터다. 의료·생명과학 특화 데이터를 집중해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신약 후보 발굴 기간을 수개월 단축했다. 이처럼 특정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적 AI 인프라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 국립컴퓨팅센터의 ‘장 자이’는 126 PF 규모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며 스타트업·학계에 24시간 개방해 ‘AI for Good’ 생태계를 빠르게 키웠다. 파리·사클레 연구단지 내 데이터센터·대학·랩이 도보 15분 내에 모여 있는 ‘20분 혁신지구’ 전략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혁신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들 사례는 세 가지 교훈을 남긴다.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인재·융합 분야를 묶은 ‘중

합 패키지’ 투자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 △지역 특화 분야(의료, 기후, 산업 등) 조기 선정과 집중 육성이다. 이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광주는 이미 데이터라는 피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혈관과 장기를 갖추고 있다. 이제 광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크고 강력한 심장, 바로 국가 AI컴퓨팅센터다. AI데이터센터가 어린이의 심장이라면,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성장한 청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높은 시너지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광주가 지난 5년간 겪어온 우여곡절과 투자는 결코 매물 비용이 아니다. 이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다.

광주의 AI 산업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 이미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AI 경쟁을 고려하면, 빠른 결정과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항저우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유치는 단순한 시설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AI 경쟁력 확보는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좌우할 중대한 이슈다.

AI 시대의 새로운 심장을 광주가 품어야 한다. 그래야만 광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AI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광주 시내버스 파업만은 안된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잠시 보류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노조는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인 4일 지노위 3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다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파업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조정 협상에서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 측은 광주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은 전국 17개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해 통상임금과 기본급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요구했고 노조 측은 기본급 8.2% 인상과 통상임금은 추후 협의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회의는 속개와 정회만 반복하다 양측 모두 ‘조정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 극심한 대립이 계속됐다. 답답할 노릇이다.

노조 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상황에서 9개 버스회사 사장단과 아무런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교통국장이나 광주시장이 현실적으로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며 “2차례 조정에도 사 측이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3차 조정회의 때도 조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5일 첫차부

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6일 ‘2025년 정의행위(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해 총조합원 수 1,362명 중 1,09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73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9일 오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시민불편을 고려한 지노위와 노사 간 3차 합의에 따라 4일 3차 조정회의까지 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사 측은 “광주의 경우 대전·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와 임금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기사 임금과는 맞출 수 없는 재정 상태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민들의 세금 200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게 된다”며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정 시한 마감일까지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시내버스가 파업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파업만은 자제해야 한다. 양 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정상화 상생의 지혜 모아야

지난달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다. 금호타이어 화재는 금호타이어 종사자들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긴 불행한 일이다. 다행히 사망사고 등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2공장이 불에 타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으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회사 근로자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인근 주민과 광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올 광주지역 실질경제성장률이 0.32%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재발 방식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금호타이어가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이후 경영진은 머리 숙여 사과했고, 지금은 화재 원인을 밝혀내고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호타이어를 비판하지만, 이제는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물론 이 역시 일차적으로 금호타이어의 몫이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

되 종사자 누구 한 사람도 불만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 지역 선포나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민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회사를 비난하거나, 중구난방식 해법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일 등은 자제해야 한다.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중견기업이자,반세기가 넘게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했다. 연말이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계속해오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작은 정성을 모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후원하는 일도 25년째 하고 있다. 수해를 입은 어르신만도 누적 1만여 명이 넘는다. 초록우산과 함께 아동들을 돕는 일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광주시민의 가장 큰 자랑 중의 하나는 대동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모두가 상생의 지혜를 모으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완벽하고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

사진 속 세상



주말 시민들 북적 청와대 입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